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인식

이경아¹ · 김진현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²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Lee, Kyoung A¹ · Kim, Jinhyun²

¹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397 nursing students in D city from October 1 to October 8, 2014.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was 3.42, 3.08 and 3.27 on a Likert 5 point-scale respectivel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search behavio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of subjec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career support program from 1st grade to improve nursing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Commitment to career choice, Nursing stud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1999년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간호사 고용을 유인하도록 하였으나, 중소병원에서는 여전히 간호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2008년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등은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만으로는 즉각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2008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고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됨¹⁾에 따라, 이후 5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수는 45.5%가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는 2008년 기준 간호대 정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만명의 간호대학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²⁾

이처럼 급격한 간호대학 정원 증가는 간호대학의 입장에서 졸업생의 취업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간호대 취업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는 간호학과를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만 낙관 할 수 없게 되었다.³⁾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 진학동기가 졸업 후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간호학과의 취업률도 안전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간호사는 전문직의 사명과 윤리의식을 지니고 희생

주요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간호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Kim, Jinhyun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r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18, Fax: +82-2-741-4375, E-mail: jinhyun@snu.ac.kr

투고일 2015년 2월 24일 /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6일 /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10일

과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대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와 입학동기로 전문직을 원해서와 직업의 안전성을 뽑았고, 간호학과 진학을 선택하는 시기도 수학능력 시험 이후가 50.3%로 과반수 이상이였다.⁴⁾ 간호대는 취업률도 높고, 대부분의 학생이 간호대학 진학과 동시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진로를 결정 후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대학생활동안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바쁜 교과과정을 소화하다 보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찰이 부족하게 된다.⁵⁾

이렇게 대학입학 당시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동안에도 본인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탐색이 없이 3~4년의 대학생활 후 우선적으로 병원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막연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직장 조기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3.6%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 16.8%의 2배에 가까이 보고되고 있고,⁶⁾ Cho와 Lee (2006)의 연구에도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의 뚜렷한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 신규간호사로서 간호업무할 때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 의도를 갖는다고 발표하고 있다.⁷⁾

이처럼 간호학과와 취업률도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임상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간호학과 졸업생의 역량을 요구로 하는 곳이 많이 때문에 병원으로의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가 있으므로⁸⁾ 본인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학과와 경우 대학생활 동안 인생의 진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진지한 고민을 할 여건을 제공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병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 및 채용 정보 전달 등의 취업지도만 이루어지고 있고,⁹⁾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졸업 직후에는 85% 이상의 학생이 국내임상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어¹⁰⁾ 다양한 진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전공 지식에 대한 습득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고민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여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¹¹⁾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직업선

택과 계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¹²⁾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진로적응의 결정인자로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탐색과 선택 및 적응행동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¹³⁾

여기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과 외부환경을 이해하는 인지적·행동적 활동으로¹⁴⁾ 진로 목표를 세우고 진로 결정을 하더라도 진로탐색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¹⁵⁾

진로결정몰입이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분명하게 하고 진로결정 활동에 참여하는 신념이나 희망, 기대, 결심을 표현하는 심리적 도구로, 진로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직업생활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¹⁵⁾ 이러한 진로결정몰입은 진로결정과 진로결정실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인¹⁶⁾으로, 인생에서 진로 결정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진로결정몰입의 정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로결정몰입이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진로탐색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의 정도와 관계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간호대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를 비교한다.
-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 정도 및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D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569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적절한 응답으로 자료 활용이 불가능한 2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97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과 Taylor (1996)¹⁸⁾가 개발한 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을 이용하였다. 이는 25가지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으로 자기평가 5문항, 직업정보수집 5문항, 목표선택 5문항, 진로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 Jeong과 Yoo (2014)의 연구¹⁹⁾에서는 Cronbach's α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하위문항별 도구의 신뢰도는 자기평가 .91, 직업정보수집 .89, 목표선택 .87, 진로계획 .92, 문제해결 .90이었다.

2)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동선(2003)²⁰⁾이 개발한 진로탐색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자기에 대한 탐색 12문항과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 16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로 나타났다. 하위문항별 도구의 신뢰도는 자기탐색 .92, 직업환경탐색 .90이었다.

3)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몰입은 Blustein, Ellis와 Devenis (1989)가 개발하고 최수정(2007)이 번안한 진로결정몰입 검사(Commit-

ment to Career Choice Scale, CCCS)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8문항으로 진로탐색 및 몰입과 진로배제 경향의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변인간의 개념적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문항을 역채점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몰입한 수준이 높으며, 폐쇄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2013)²¹⁾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하위문항별 도구의 신뢰도는 진로탐색 및 몰입은 .80, 진로배제는 .7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해 제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학년 138명(34.8%), 2학년 95명(23.9%), 3학년 95명(23.9%), 4학년 69명(17.4%)으로 남학생이 54명(13.6%), 여학생이 343명(86.4%)이었다. 학과 만족도는 351명(88.4%)이 현재 간호학과 진학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46명(11.6%)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졸업 후 진로계획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327명(82.4%)은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답하였고, 70명(17.6%)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Table 1).

전공만족여부와 진로계획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만족은 1학년이 96.4%로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소 감소하였으며, 진로결정의 경우 반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4학년의 98.6%가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답하였다(Table 2).

2.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 몰입 정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중 3.42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자기평가 3.50점, 목표설정 3.50점, 직업정보 수집 3.42점, 진로계획 3.35점, 문제해결 3.31점으로 자기평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진로탐색행동은 5점 만점에 3.08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자기탐색 3.20점, 환경탐색 2.98점으로 자기탐색행동이 환경탐색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몰입검사에서는 5점 만점에 3.2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진로탐색 및 몰입이 3.25점이었으며, 진로배제는 3.31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	138 (34.8)
	2	95 (23.9)
	3	95 (23.9)
	4	69 (17.4)
Gender	Male	54 (13.6)
	Female	343 (86.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Yes	351 (88.4)
	No	46 (11.6)
Career decision	Yes	327 (82.4)
	No	70 (17.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학년에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 보다 2·3학년이 낮게 나타났으며($F=13.584, p<.001$),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1·2학년보다 3·4학년에서 높게 나타

Table 2.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by Grade and Gender

Variable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Yes	No	$\chi^2 (p)$	Yes	No	$\chi^2 (p)$
		n (%)	n (%)		n (%)	n (%)	
Grade	1	133 (96.4)	5 (3.6)	14.604 (.002)	105 (76.1)	33 (23.9)	25.694 ($<.001$)
	2	83 (87.4)	12 (12.6)		69 (72.6)	26 (27.4)	
	3	78 (82.1)	17 (17.9)		85 (89.5)	10 (10.5)	
	4	57 (82.6)	12 (17.4)		68 (98.6)	1 (1.4)	
Gender	Male	48 (88.9)	6 (11.1)	0.014 (.561)	42 (77.8)	12 (22.2)	0.907 (.220)
	Female	303 (88.3)	40 (11.7)		285 (83.1)	58 (16.9)	

Table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ariables	Categories	M±S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 evaluation (5 questions)	3.50±0.52
	Setting an objective (5 questions)	3.50±0.51
	Career relation data gathering (5 questions)	3.42±0.48
	Making a plan (5 questions)	3.35±0.53
	Solving a problem (5 questions)	3.31±0.54
	Total (25 questions)	3.42±0.44
Career search behavior	Self-exploration (12 questions)	3.20±0.59
	Environmental-exploration (16 questions)	2.98±0.60
	Total (28 questions)	3.08±0.56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19 questions)	3.25±0.41
	Tendency to Foreclose (9 questions)	3.31±0.41
	Total (28 questions)	3.27±0.33

났다($F=12.829, p<.001$). 진로결정몰입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 만족 여부에 따라서는 진로결정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본인의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진로결정몰입정도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t=3.224, p=.002$). 미래의 진로계획을 결정여부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래 진로계획을 세운 경우가 세우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모두 다소 높게 분석되었다. ($t=5.116, p<.001$; $t=3.341, p=.001$; $t=2.874, p=.004$).

4.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간의 상관관계 비교는 Table 5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r=.373,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결정몰입($r=.321, p<.001$),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r=.193, p=.003$)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의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간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과 4학년에 비교하여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과목에 대한 부담과 실습의 스트레스, 국가고시 및 취업의 스트레스 때문에²²⁾ 저학년때 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Kim과 Lee (2014)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만 19세 이하가 만 22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²³⁾ 그러나 진로 결정 정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막연하던 미래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42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

Table 4.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Commitment to career choice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Grade	1 ^a	3.47±0.44	13.584	3.00±0.56	12.829	3.30±0.36	1.301
	2 ^b	3.31±0.38	(<.001)	2.87±0.50	(<.001)	3.24±0.31	(.274)
	3 ^c	3.27±0.35	b, c < a	3.18±0.49	a, b < d	3.23±0.30	
	4 ^d	3.64±0.50	b, c < d	3.35±0.58	a, b < c	3.29±0.32	
Gender	Male	3.45±.041	.630	3.07±0.62	-.007	3.31±0.37	.951
	Female	3.41±0.44	(.529)	3.08±0.55	(.995)	3.26±0.32	(.342)
Major satisfaction	Yes	3.42±0.42	.698	3.07±0.56	-.041	3.29±0.33	3.244
	No	3.37±0.54	(.488)	3.08±0.56	(.967)	3.16±0.24	(.002)
Career decision	Yes	3.46±0.45	5.116	3.12±0.56	3.341	3.29±0.33	2.874
	No	3.22±0.33	(<.001)	2.88±0.54	(.001)	3.17±0.26	(.004)

Table 5. Correlation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ariabl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r (p)		r (p)	
Career search behavior	.373 (<.001)		1	
Commitment to career choice	.321 (<.001)		.193 (.003)	

로 한 Chung, Gang과 Kim (2014)의 연구에서 3.40점과²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13)의 연구에서의 3.44점과²⁵⁾ 유사한 점수이다. 하부영역별로는 자가평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각각 3.50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3.31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Jung, Jeong과 Yoo (2014)의 연구에서 하부 영역에서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부분이 가장 낮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자기평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비해 진로 의사결정에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문제해결부분이 간호대학생은 취약한 것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¹⁹⁾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과 3학년보다는 1학년과 4학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는데, 졸업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점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19,26)} 졸업학년이 되면 진로결정에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1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간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온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간호대 1학년의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업적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2학년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전공 및 실습을 경험하면서 자기평가 및 진로 계획, 목표설정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자기탐색행동은 많이 하면서 주변의 전문적인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행동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의 경우 졸업 후 진로가 어느정도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진로탐색행동 총 점수는 3.08로 Moon과 Lee (2010)의 연구에서의 2.39와⁸⁾ park (2012)의 연구에서의 2.14보다²⁷⁾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간호대 입학정원이 증가하면서 취업문이 좁아져 예전보다는 진로탐색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간호대 졸업시기가 되면 대부분 병원으로 취업하였으나 이제는 간호대 졸업생의 증가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간호대생 스스로가 본인이 목표로한 진로에 대해 정보를 찾고 그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진로탐색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1학년과 2학년때보다 3학년과 4학년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결정몰입의 경우 3.27점으로 하부요인별로는 진로탐

색 및 몰입이 3.25점, 진로배제가 3.31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2013)의 연구에서의 진로결정몰입 3.01보다²¹⁾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진로탐색 및 몰입만을 본 Kim (2013)의 연구에서는 3.26으로²⁸⁾ 조사되었으며, 대학생의 진로배제 경향을 본 Kim (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배제경향이 2점대로 나타나²⁹⁾ 타 전공의 일반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몰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배제성이 높게 나오에 따라 간호대는 다른 전공과 달리 졸업 후 특정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취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강한 애착을 동반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이 졸업후 병원으로 취직을 한다는 점에서 취직 후 병원에 적응하지 못할 때 오히려 진로의사결정에 부정적 심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을 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진로 몰입에 있어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 후에 본인의 적성에 부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13,15,1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직 이론과 실습에 큰 부담이 없고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은 높은 1학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공 외에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에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의 적성에 부합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하고, 4학년 때는 전공 수업에 대한 비중을 낮추어 본격적으로 진로탐색행동하고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해 주고 지도해 준다면 주다면 간호대학생의 직업선택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년에서는 교양 과목 위주로 교과목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다양한 간호사 취업분야에 대한 세미나 방식의 수업을 통해 초기에 병원 간호사를 목표로 간호학과에 진학하였을 지라도 간호학과 의 전공을 살리면서도 좀 더 본인의 적성에 적합하고 흥미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간호대학생이 미리 본인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본인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심층적 개별진로 상담이 필요하다. 4학년에서는 본격적인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차원의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고 본인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간호대 정원이 증가하고 병원의 간호사 수요가 한정되어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 졸업생이 임상간호사라는 진로 이외에도 간호사로 일 할 수 있는 일차보건의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 등 다양한 진로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학생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여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 정원이 증가하고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여부와 진로계획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로결정 여부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42점이었으며, 하부요인 별로는 자기평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목표설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진로탐색행동은 3.08점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자기탐색행동이 환경탐색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몰입검사에서는 3.2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진로탐색 및 몰입이 3.25점이었으며, 진로배제는 3.31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는 학년에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1학년과 4학년 보다 2학년과 3학년이 낮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행동의 경우 1학년과 2학년보다 3학년과 4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보면 간호대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진로 의사결정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1학년의 경우 전공 이론과 실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학년과 3학년에 비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효능감도 높은 상태이므로 이때부터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선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이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4학년에 진로결정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

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방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늘리고 반복적으로 연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학과 동시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Lee TW, Kang KH, Ko YK, Cho SH, Kim EY. Issues and challenges of nurse workforce policy: a critical review and implication. *J Korean Acad Nurs Adm*. 2014;20(1):106-16.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1.106>
2. Kim JH. The demand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 in Korea. Invited lecture presented at the 2013 Annual Spring Meeting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Seoul, Korea.
3. Park CS. The breaking of employment rate of department of nursing in Chungnam. *The news1*. 2014 Sep15. Available from: <http://news1.kr/articles/?1857266>
4. Bang KS, Cho JK.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 Korean Acad Soc Nurs Ed*. 2008;14(1):88-97.
5. Kim Mh, Lim JY, Kim SY, Kim EJ, Lee JE, Ko YK.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4;13(4):383-91.
6. Kim BH, Chung BY, Kim JK, Lee AY, Hwang SY, Cho JA, et al.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Korean J Adult Nurs*. 2013; 25(6):701-11. <http://dx.doi.org/10.7475/kjan.2013.25.6.701>
7.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nc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 Health Nur*. 2006;20(2):163-73.
8.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 Soc Nurs Edu*. 2010;16(1):83-91.
9. Han SJ.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 Adult Nurs*. 2013;25(5):559-66. <http://dx.doi.org/10.7475/kjan.2013.25.5.559>
10. Bang KS, Jun MH, Kim HS, Son HM, Kang JH, Yu SJ, et al.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nursing and future career.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09;15(1):22-31.
11. Baek SI. The effects of perceived employment barrier of university senio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 Educ Career*. 2011;1(2):91-109.
12. Bandura A.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1977;84(2):191-215.
13. Abele AE, Spurk D. The longitudinal impact of self-efficacy

- and career goal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J Vocational Behavior*. 2009;74:53-62.
14. Blustein DL.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 Coll Stud Dev*. 1989;30:111-7.
 15. Kim SM, Lee HR. A structural analysis of anticipated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ncie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 Career Educ Res*. 2008;21(3):27-48.
 16. Choi SJ.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family variabl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17. Kim JG, Lee KH. Autonomy support in the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mediated by personal growth initiativ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Korea J Counseling*. 2011;12(1):81-97.
 18. Betz NE, Klein KL, Taylor KM.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 Career Assess*. 1996;4(1):47-57.
 19.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1):27-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20. Choi DS.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otivational factors and attach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21. Lee KS. The effect of dysfunctional family structur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dissertation]. Seoul: Sookmyung Women's National University; 2013.
 22. Lee YS, Park SH, Kim JK.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J Korean Contents Assoc*. 2014;14(6):229-40.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229>
 23. Kim DJ, Lee JS.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20(2):244-54.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24. Chung YH, Gang HS, Kim JS. Employment preparation, work valu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 Soc Res Inst*. 2012;22:71-88.
 25. Kim YH.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Contents Assoc*. 2013;13(12):817-28.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17>
 26. Cho HJ.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 Vocational Educ Res*. 2014;33(4):103-27.
 27. Park SJ.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on career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2;18(2):259-67.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59>
 28. Kim TW.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 autonom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rom undergraduate students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29. Kim YJ. The influence of personal agency beliefs of college students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dissertation]. Gyeonggi: Kyounggi University; 2013.